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희경**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그리고 영아의 기질과 성별이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2010년 한국아동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 1,802사례였으며, 대상 영아의 평균월령은 25.75개월이었다. 한국형 Denver II 검사에 의한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의 비율은 전체 사례의 89.5%, 10.5%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낮고,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부족하며, 남아일 때 의심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정상발달, 의심발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영아의 사회성 기질, 영아의 성별

논문투고일 : 2013. 6. 1

최종심사일 : 2013. 6. 12

게재확정일 : 2013. 6. 20

* 이 논문은 2012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ang, Hee Ky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il University, 28, Yongmasan-ro 90-gil, Jungnang-gu, Seoul, Korea(131-702). E-mail : khkyung@seoil.ac.kr

I. 서론

영아기의 경험은 영아기 발달 뿐 아니라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발달적 위협에 처한 영아에 있어 조기 발달 진단은 아동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조기 선별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아동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김정미, 신희선, 2006).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의 12~16%는 발달 또는 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AP, 2001). 발달문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위해서는 조기 발달 사정과 체계적인 추후 관리가 중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신희선, 권범선, 임성오, 2005).

이렇듯 조기 발달 진단의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 하여,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된 양육환경인 부모 관련변인과 영아관련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 변인은 주된 양육자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영역은 양육행동이다. 그러나 최근 양육 관련 국내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영아 발달 간의 일차적 관계만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오정순, 2012).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우울, 불안수준,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은 어머니 우울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은 문화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경, 2003).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은 심장질환, 만성 통증, 조기 노화, 심지어 알츠하이머 등의 유병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나쁜 식습관·흡연·알코올 의존·약물 중독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Salvoey, Rothman, Detweiler & Steward, 2000), 부부관계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Hammen & Brennan, 2002; Roux, Anderson & Roan, 2002)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어머니 우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자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주목되는데, 어머니의 우울은 태아기부

터 성인기까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지속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ndall-Tackett, 2010).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어머니 우울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어머니 우울과 자녀 발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어머니의 출산후 우울은 의사소통, 대근육활동, 소근육활동,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등 영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주현, 김진경, 2011). 오정순(2012)의 최근 연구에서도 어머니 우울은 영아기 자녀의 대근육 운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산후 우울을 보이는 산모들의 영아들은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방경숙, 2012). 서주현과 김진경(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출산직후 우울이 영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가질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산전산후 우울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를 실행한 최인에, 이경숙, 신의진, 박진아(2012)의 연구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과 영아기 자녀와의 신체 접촉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수정과 곽금주(2005)의 연구에서도 수유,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잠재우기 등과 같은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아기 자녀와 장난을 치거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사회정서적 양육 상황에서는 어머니 우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정, 곽금주, 2005). 이렇듯 어머니 우울이 자녀 발달에 부정적 관련을 갖는다는 외국의 연구(Kendall-Tackett, 2010)와는 다르게 국내 연구에서는 영향을 가지거나(방경숙, 2012; 서주현, 김진경, 2011; 오정순, 201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김수정, 곽금주, 2005; 최인에 등, 2012)가 보고되고 있어 그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자녀의 출생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기적 생활사건으로,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에 수반된 생활의 변화, 예를 들면, 지출의 증가, 수면시간의 부족이나 방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Ventura(1987)의 연구에서는 생후 3~5개월의 영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양육역할과 일 및 가족 간 다중 책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과중한 역할부담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자녀 발달에 어떤 관련을 맺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1세 이하 영아의 발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민현숙, 문영경, 2013). 이경하, 서소정(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오정순(2012)의 최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기 자녀의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와 더불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Coontz.1998). 국내 선행 연구들(김숙령, 최향준, 정경화, 이윤이, 2012; 박진아, 신유림, 이미라, 2013; 장영애, 이영자, 2008; 한정현, 심미경, 2011)에서도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관심 있는 양육 참여가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숙령 등(2012)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보아주기, 재우기, 옷입히기, 기저귀 갈아주기, 함께 놀아주기 등과 같은 일상적 양육참여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 역시 자녀의 정서지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한정현, 심미경, 2011). 장영애와 이영자(2008)의 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 생활지도 참여, 학습지도 참여 등과 같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자녀의 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끝으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아 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영아의 기질은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생득적인 특성으로 영아기부터 그 특성이 나타나서 성장 후에 성격의 기본이 된다. 기질은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의 특징을 나타내며, 상대적이고 생물학적인 개인차가 있다(Buss & Plomin, 1975). 이러한 영아의 기질은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숙령 등, 2012). 김현(2010)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언어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쉽게 울고, 격렬하게 화를 내는 정서적 기질은 영아발달에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하, 서소정, 2012). 임현주와 이대균(2013)의 최근 연구에서도 영아의 활동적인 기질과 정서적인 기질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영아의 기질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관련 변인과 영아 관련 변인, 즉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영아의 기질 및 성별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관련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영아의 기질과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여 줌으로써 영아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의심발달에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 어머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영아 기질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영아의 기질과 성별은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10년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 1,802사례이다. 한국아동패널은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단일 연령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층화 2단계 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유형은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는데, 일반조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양육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심층조사는 전국의 각 권역별로 아동의 각 발달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8(SD=3.67, 범위 21~48)세였고, 대상 자녀의 경우 남아 51.0%, 여아 49.0%였으며, 조사 당시 자녀의 평균 월령은 25.75(SD=3.67, 범위 23~3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의 정의 및 측정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 우울은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와 Zaslavsky(2002)이 개발한 척도로, 최근 30일간 대상자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해 묻는 5점 Likert 척도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등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우울 최종 합산 점수에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등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된다. 어머니 우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909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32개 문항 중,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는 .865였다.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홍성례의 연구(1995)에서 사용된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척도에서 부모역할 4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아기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는 .803이었다.

4) 영아의 기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아의 기질 척도는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 기질척도-부모용(The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의 20개 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EAS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영역별 점수의 총합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서성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질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544로 나타났다.

5) 발달 특성 : 한국형 Denver II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한국형 Denver II 검사(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에 근거한 최종 검사 결과 '정상 발달'과 '의심 발달'의 두 가지 범주이다. 본 도구는 0세부터 만6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원 Denver II 검사는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준화된 한국형 Denver II 검사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0항목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Denver II 검사는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적응발달, 언어발달 및 전체운동발달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발달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뿐 아니라, 12개국 이상에서 표준화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도구는 주양육자가 아닌 제3자가 아동의 수행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수행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도구의 점수화방식은 각 항목에 대한 검사자의 결과 표시를 '통과', '실패', '기회 없음' 또는 거부 '로 구분한다. 그러나 각 항목은 규준집단 중 해당 항목을 통과한 아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상', '주의' 또는 '지연'으로 해석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총평에 해당하는 아동별 검사결과는 '정상발달'과 정상발달로 코딩되지 않는 '의심스런 발달'로 코딩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지수를 산출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독립변인이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가지 범주로 되어 있을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기법이다(배현웅·방성완, 2013).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표 1>은 한국형 Denver II 검사에 근거한 최종 검사 결과 '정상발달'과 '의심 발달'의 두 가지 범주에 대한 성별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정상발달은 전체 사례의 89.50%였으며, 의심 발달 범주에 속하는 사례는 10.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정상발달이 전체 남아의 87.01%, 의심발달이 12.99%이고, 여아의 경우에는 정상발달 92.06%, 의심발달 7.94%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 의심발달 분포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표 1> 정상의심발달의 분포

(N=1770)

구분	남아(%)	여아(%)
정상발달	784(87.01)	800(92.06)
의심발달	117(12.99)	69(7.94)
전체	901(100.00)	869(100.00)

<표 2>는 주요 독립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어머니 우울의 경우 평균 11.83(SD=4.20)점으로 나타나서 정상분포 점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69.7%가 정상범주(우울 총점 6~13점)에 분류되었으며, 경도/중등도 우울 범주에 들어가는 14~18점에 분포하는 어머니는 23.7%였다. 중도의 범주로 분류되는 19~30점 범위의 점수 분포를 보이는 대상자는 6.6%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1~5점 Likert 기준 2.79(SD=.63)점으로 나타나서 보통 정도의 양육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양육참여는 3.72(SD=.84)점으로, 아버지의 전반적인 자녀양육참여는 ‘대체로 참여하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영아의 기질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성 기질의 경우 3.59(SD=.55)점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 영아들의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사회성 기질이 대체로 있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정서성 기질의 경우에는 평균 2.84(SD=.61)점으로 나타나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기 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성 기질의 경우에는 평균 3.90(SD=.59)점으로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이 대체적으로 있는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N=1802¹⁾)

변 인	평균(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어머니 우울	11.83(4.20)	6~29	.53	.20
어머니양육스트레스	2.79(.63)	1~4.82	.04	.36
아버지 자녀양육참여	3.72(.84)	1~5	-.36	-.49
영아의 사회성기질	3.59(.55)	1.5~5	-.20	.14
영아의 정서성 기질	2.84(.61)	1.2~5	.22	.13
영아의 활동성 기질	3.90(.59)	1.4~5	-.24	-.08

1)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Klein, 1998).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 분석결과에서는, 왜도는 -.36~.53사이에, 첨도는 -.49~.36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정상성에 가까운 분포임을 알 수 있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영아의 정상 발달과 의심발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Chi-square(χ^2)값이 46.406($p<.001$)로 나타나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영아의 기질과 성별의 독립변인들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전체 영아들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을 분류한 예측 성공률은 90.0%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과 영아의 정상발달 여부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영아의 기질, 그리고 영아의 성별이 유의미하게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낮고,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부족하고, 남아일 때 의심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표 3> 영아발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Exp(β)
어머니 우울	-.011	.98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009	1.009
아버지 자녀양육참여	-.094***	.910
영아의 사회성 기질	-.050**	.951
영아의 정서성 기질	.038	1.039
영아의 활동성 기질	.004	1.004
영아의 성별(남=1)	.632***	1.882
예측성공률	90.0%	
-2 Log Likelihood	1039.371	
Model χ^2	46.406***	

** $p<.01$, *** $p<.001$

이들 유의미한 변인 중 영아의 성별은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다(Exp(β)=1.882, $p<.001$) 다음으로는 영아의 사회성 기질(Exp(β)=.951, $p<.01$),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Exp(β)=.910, $p<.001$) 순으로 분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은 정상 발달과 의심발달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발달의 지속적이고도 누적적인 영향력과 함께 위험 발달에 대한 조기 선별이 추후 아동발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기반하여, 영아기 정상발달과 위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그리고 영아의 기질과 성별이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한국아동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연구대상 영아의 정상발달은 전체 사례의 89.50%, 의심발달은 10.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의심발달의 경우 남아가 전체 남아의 12.99%, 여아는 전체 여아의 7.94%인 것으로 분석되어, 남아의 의심발달 분포가 여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전반적인 발달 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의사소통 능력과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한 임현주와 이대균(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지현과 오경자(2011)의 최근 연구에서도 남아의 문제행동 비율이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의 분포에서 성차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 자녀양육참여와 영아의 사회성 기질, 그리고 영아의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낮고,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부족하며, 남아일 때 의심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은 영아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들(김숙령 등, 2012; 박진아 등, 2012; 장영애, 이영자, 2008; 한정현, 심미경, 2011; Coontz, 1998)과 일치한다. 또한 영아의 기질이 의심발달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는 김숙령 등(2012), 이정하·서소정(2012), 임현주·이대균(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어머니 우울이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 우울과 자녀발달과의 누적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많은 선행 연구들(방경숙, 2012;

서주현, 김진경, 2011; 오정순, 2012; Kendall-Tackett, 2010)과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어머니 우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아니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우울 정도는 평균 11.83(SD=4.20)점인 것으로 나타나서 우울로 분류되지 않는 정상범주로 나타났다. 중도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전체의 6.6%로 나타나서, 우울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주지하였듯이, 어머니 우울이 영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 우울과 같은 양육자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서주현과 김진경(2011)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어머니 우울이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어머니 우울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어머니 우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자녀발달에 미치는가에 대한 경로를 밝히는 작업이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 우울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우울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최인애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우울 특성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자녀의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본다. 어머니 산후 우울의 경우, 침해적 우울과 철회적(위축)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철회적 우울 특성의 어머니는 자극을 거의 주지 못하는 반면 침해적 우울 특성의 어머니는 자극을 과도하게 주고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측정도구가 이러한 우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우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최인애 등, 2012). 따라서 우울과 영아발달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보다는 어머니 우울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측정이 필요함을 최인애 등(2012)의 연구를 통하여 시사 받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우울의 어떤 특성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자의 기대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영아기 자녀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자녀의 양육책임자는 어머니 뿐 아니라, 공동 책임자로서의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자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없거나 거의 기대 할 수 없다면 의심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차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 성별이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 본 연구 결과는 기질과 성별에 따른 양육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아의 기질이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숙령 등, 2012; 김현, 2010; 이경하, 서소정, 2012; 임현주, 이대균, 2013)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아기 문제 행동에 있어 기질과 성차를 보고한 강지현과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남녀 모두 기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기질의 설명력이 더 많았으며,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양육행동의 설명력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하면, 남자 영아의 경우, 사회성 기질이 부족할 때 의심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양육 상황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연구는 양육자 관련 변인과 영아 관련 변인, 즉, 어머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영아의 기질 및 성별이 영아기 자녀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영아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아가서는 의심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여 준다고 본다. 그러나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영아의 정상발달과 의심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영아의 성별에 비해 미미한 점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또한 주된 양육자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6(1), 1-21.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수정, 곽금주(2005).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상황에서의 접촉 유형의 비교: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접촉태도,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8(2), 1-21.
- 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이윤이(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정미, 신희선(2006). K-CDI 아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아동학회지, 27(4), 39-53.
- 김현(2010). 영아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교사 상호작용과 영아 언어능력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67-93.
- 민현숙, 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지, 22(1), 43-56.
- 박경(2003).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3), 581-593.
- 박진아, 신유림, 이미라(2013).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생후 초기 발달 고위험군 영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31-46.
- 방경숙(2012). 산모의 우울이 생후 4개월 영아의 기질, 건강과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의 지평, 9(1), 9-15.
- 배현웅 · 방성완(2013). R과 함께 하는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우사.
- 서주현, 김진경(2011).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171-172.
- 신희선, 권범선, 임성오(2005). 발달문제 위험 아동 선별을 위한 한국형 Denver II 검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1(3), 316-321.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 현문사.
- 오정순(2012).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2(2), 51-65.
- 이경하, 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경하, 서소정(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임현주, 이대균(2013). 영아의 기질과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방식의 매개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125-144.
- 장영애, 이영자(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최인애, 이경숙, 신의진, 박진아(2012). 어머니이 산전 산후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와 영아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5(3), 125-148.
- 한정현, 심미경(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1(1), 9-31.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01) Developmental surveillance and screening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Pediatrics*, 108(1), 192-196.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Wiley.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oontz, S. (1998). *The way we really are : Coming to terms with America's changing families*. New York : Basic Books.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Hammen, C. & Brennan, P. (2002). Interpersonal dysfunction in depressed women : impairments independent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2, 145-156.
- Kendall-Tackett, K. A. (2010). *Depression in new mothers - causes, consequences, and treatment alternatives*. Routledge. NY : New York.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ka, D, K., Normand, S, L.,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lein,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Roux, G., Anderson, C., & Roan, C. (2002). Postpartum depression, marital dysfunction, and infant outcome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11, 25-36.
- Salovey, P., Rothman, A. J., Detweiler, J. B., & Steward, W. T. (2000). Emotional states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5, 110-121.
- Ventura, J. N. (1987). The stresses of parenthood reexamined. *Family Relations*, 36(1), 26-29.

Abstract

Variables Associated with Normal or Delayed Development in Infants

Kang, Hee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egree to which parental and infant variables affect normal or delayed development. The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were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infant temperament and infant sex.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ample 1,802 Korean Children Panel 2010.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infant temperament(sociability) and infant sex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normal or delayed development in infant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mal Development, Delayed Development,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Infant Temperament(sociability), Infant Sex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il University